

1920년대 초 科學과 玄學의 논전

辛勝夏*

<목차>

- | | |
|-------------|----------------|
| I. 서언 | IV. 논전의 확대와 종료 |
| II. 논전의 배경 | V. 결론: 논전의 의의 |
| III. 논전의 시작 | |

I. 서언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초까지 계속된 중서문화논전은 중국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와 그리고 그 우열을 비교하였으나 결론 없는 논쟁으로 끝났다. 왜냐 하면 중국은 중국 자체로의 뿌리 깊은 문화 전통과 독특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논전이 전개되는 동안에 전통 문화는 이미 중국인들이 경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큰 자극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으나 서양문화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가 마침내는 과학만능이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과학을 선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하겠기에 보수적 전통적이었던 이른바 현학파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과학과 현학의 논쟁은 이 논쟁이 독자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서의 중서문화논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더 심화된 논쟁이라고도 할수 있다.¹⁾

* 高麗大學校 東洋史學科 教授.

1) 이는 5.4신문화운동이 분화된 것을 반영하며 또한 5.4신문화 운동이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반영하고 있다.(傅長祿, 『中國現代文化史略』, 吉林大學出版社, 1991, p.78)

사실 증서문화논전이나 과학과 현학의 논전이 일어나기 전에 과학방법에 관한 문장이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잡지가 『科學』이었다. 때문에 과학이란 용어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용어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과학은 가장 매력있는 단어가 되었으며 더욱 확산되어 과학만능론이 등장, 한때를 풍미하게 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과학파산론을 제기하게 되었고, 신문화 운동이래 서양문화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사람들은 과학적이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또한 1차 세계대전기간동안 중국은 잠시동안이나마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서 놓여나 민족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과학만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II. 논전의 배경

신문화 운동이 확대되면서 문화 사상계에서는 이른바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 크게 일어나 한때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다. 5.4 신문화 운동의 주요 구호였던 “과학과 민주”라는 것이 크게 확산되고, 또한 중국인들 특히 젊은 이들에게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이 “민주와 과학”이란 구호는 당시 문화 사상계에 절대적인 권위와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에는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德(데모크라시-民主)선생과 塞(사이언스-科學)선생을 반대하거나, 또한 감히 이를 공격하고 나설 사람이 없을 만큼 당대를 휘어잡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5.4학생애국시위운동 직후 梁啓超가 ‘과학파산론’을 제기하였던 것이 고작이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梁啓超와 丁文江 등은 중국대표단의 장외 고문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되었다. 양계초 등은 오이켄·베르그송·베르그송의 스승인 부트르 등 많은 철학자들 및 정치가·문인들을 방문하였다.²⁾ 장군매에 의하면 양 동일행이 이들을

2) 이들은 장군매를 비롯한 현학파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과학파인 정문강·호

방문한 동기가 중국에 신사상이 도입됨으로써 받은 충격 때문에 유럽 지식인들로부터 조인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

이때 전후 유럽의 참담한 파괴상황을 보고 돌아온 양계초는 귀국하자마자 「旅歐心影錄」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양계초는 과학과 그리고 과학이 인생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유물파들은 과학에 근거하여 순물질적, 순기계적 인생관을 만들고 있으며’, ‘인류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상계의 최대 위기’라고 지적하였다.⁴⁾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과학의 죄상을 나열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과학이라고 선전하였기 때문에 전 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회의와 번민과 두려움에 빠져 마치 나침반이 없는 배가 바람과 안개를 만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를 모르는 것과 같게 되었다고 하였다.⁵⁾

사실 양계초의 ‘과학파산론’은 당시 과학에 미쳐있으면서 과학만이 살길이라고 여겨왔던 중국의 신문화 운동 분위기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만일 양계초의 가정이 사실이라면 서양으로부터의 학습, 신사상에서 표방된 ‘사이언스’와 ‘데모크라시’는 그 뿌리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양계초의 이러한 관점은 신문화 운동을 반대하고 과학을 두렵게 보는 보수 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과학 파산이란 말은 해외 유학을 하지 못한 중국의 나이든 학자들에게 크게 흥분시키면서 그들은 ‘유럽의 과학은 파산했다. 양임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외쳐댔다. 확실히 양계초의 말은 반과학의 세력을 조장하는데 적지않은 위풍이 되었다.⁶⁾ 즉 양계초의 과학파산론은 당시 보수세력의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며, 5.4신문화 운동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기도 하였다.

적 등은 듀이·제임스·헉슬리·칼피어슨의 영향을 받았다.(周策縱저, 조병한역, 『5.4운동』, 광민사, 1981, p.311)

3) 周策縱저, 조병한역, 『5.4운동』, 광민사, 1981, p.304.

4) 梁啓超, 「歐遊心影錄」, 『中國現代政治思想史資料選輯』, 上, 四川人民出版社, p.172; 『從「西化」到現代化』, 羅榮渠主編, 北京大學出版社, 1990; 蔡尚思主編, 『中國現代思想史資料選編』, 제2권, 浙江人民出版社, 1983

5) 동상.

6)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1934, p.6.

Ⅲ. 논전의 시작

증서문화 논쟁이 끝나갈 무렵인 1923년 봄에 다시 인생관을 주제로 한 과학과 현학의 논전이 시작되었다. 인생관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과학과 인생관 논전”이라고도 부르거나 張君勳와 丁文江의 논쟁이 시발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張丁論戰’이라고도 한다. 이 논전은 반년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약 1년여 계속되었고, 여기에는 梁啓超·胡適·吳稚暉·陳獨秀 등 20여명이나 참여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인물들은 당대 저명한 명인들이어서 清末 이래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의 문화논쟁이 되었다.⁷⁾

胡適도 이 논전의 중요성을 가리켜 ‘전에 없던 사상계의 대 필전’이라 하였고⁸⁾, ‘중국과 서양문화가 접촉한 30년이래 첫번째의 대논전이였다’고 지적하였다.⁹⁾ 당시 과학이란 단어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또는 수구파이건 유신파이건 30년이래 국내에서 무상존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를 경시한다거나 모욕주려는 태도를 감히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¹⁰⁾

그런데 梁啓超가 『과학과산론』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과학에 도전하게 되었다. 科學과 玄學 논전의 단서를 제기한 사람은 張君勳이다. 그는 1923년 2월 14일에 清華大學에서 「人生觀」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이를 『清華週刊』 272期에 「人生觀」이란 같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과학은 반드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으며 이 원리원칙에는 모두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인생은 서로가 관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통일이 안되는 것이 인생관’이라 전제하고,¹¹⁾ 과학은 인생관을 지배할 수 없으며 단지 현학만을 가지고 인생관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高力克, 『五四后的社會文化思潮』(許紀霖·陳達凱主編, 『中國現代化史』, 第1卷, 三聯書店, 1995), p.371: 何幹之는 이 논전의 의의를 1928이후 등장한 중국사회사논전의 다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中國啓蒙運動史』, 生活書店, 1947, p.115)

8)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冊, 亞東圖書館, 1924, p.1.

9) 『新文化運動中的胡適』, p.101.

10)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1934, p.2.

11) 張君勳, 「人生論」,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1924, p.1.

그는 과학과 인생관의 다른점을 다섯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과학은 객관적이고 인생관은 주관적이다. 둘째 과학은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인생관은 직관에서 나온다. 셋째 과학은 분석 방법에 의하여 다음이 나오지만 인생관은 종합적이다. 넷째 과학은 因果規律에 지배되지만 인생관은 自由意志에 의한다. 다섯째 과학은 대상물의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인생관은 개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²⁾.

사실, 장군매의 인생관은 유럽문화 파산론과 연계된 것으로서 인생관을 제기한 것은 단순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문화 운동의 사조에 대하여 하나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즉 장군매는 인생관의 객관적 표준을 부인하고, 사람의 의지는 객관적 물질의 반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의지의 만능을 선양하여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강연의 목적은 과학적 인생관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현학파의 우두머리격인 張君勳는 江蘇 寶山人으로 淸末 府에서 실시한 鄉試에 합격한 秀才출신이었다.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서 공부하고, 양계초의 군주입헌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 베를린 대학에 입학하여 국제법학을 배우고, 1915년에 귀국하여 『時事新報』의 총편집을 맡았다. 1916년에 段祺瑞 정부가 설치한 국제정무평의회 서기장, 馮國璋 총통의 총통부 비서를 역임하고 北京大學의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梁啓超·丁文江 등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독일에 남아 철학공부를 하였다. 특히 이때 자주 프랑스로 가 베르그송과 만났다. 그리고 귀국하여 과학을 반대하고 과학에 도전하는 인생관의 논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논전이 전개되면서 張君勳는 앞에 설명한 「人生觀」을 비롯하여 「인생관과 과학을 재론하며 丁在君에게 답함」, 「과학의 평가」 등을 발표하여 그를 공격하는 글에 반론을 제기하여 논전이 확대되었다. 장군매는 이러한 글을 통하여 玄學人生觀을 선양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을 지나치게 믿는 것에 반대하고 自由意志의 인생관을 제출하였다. 그는 인생관의 특징이란 주관적이고 직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자유의지적이고 단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

12) 동상, pp.4-9.

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여도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張君勳의 자유의지의 인생관은 주관적 유심주의 세계관이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장군매가 보기에 물질과 정신은 객관적 표준이 없는 것으로 세계는 불변한 것이지만 개인의 정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으로 객관적 세계가 만든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인과 법칙을 완전히 부인하고 심지어 인류 사회발전의 규율성마저 부인하였다.

장군매의 과학을 부정하는 주장은 지금까지 신문화 운동에서 “민주와 과학”을 웨치던 사람, 특히 과학을 통하여 중국의迷信을 타파하려던 신문화 운동가들에게 하나의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과학을 보위하는 입장에 서있던 사람의 하나가 丁文江이었다¹³⁾. 정문강은 자가 在君으로 江蘇 泰興人이다. 일찌기 영국에 유학하여 켈브리지 대학과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동물학과 지질학을 공부하고, 1911년 4월에 귀국하여 북양정부의 공상부 광정사 지질과의 과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북경지질연구소의 창립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蔡元培가 북경대학을 맡게 되면서 그는 채원배를 도와 북경대학에 지질학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22년에 胡適과 『努力週報』를 창간하여 好人政府 조직과 改良主義 주장을 폈다.

정문강은 장군매의 ‘인생관’이란 글을 보고, 즉시 『努力週報』에 ‘科學과 玄學-張君勳의 인생관을 평함’이란 장문의 글을 2회 연속으로 발표하여 張君勳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문강은 장군매가 제시한 다섯가지를 직접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않고 정면으로 과학방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는 첫마디가 ‘현학이야말로 정말 무뢰귀신이다.---독자가 믿지 않는다면 장군매의 인생관을 보라. 장군매는 필자의 친구이며 현학은 과학의 敵이다. 그런데 현학의 귀신이 장군매의 몸에 붙어있어 우리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를 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때려야 할 것은 현학이지 장군매가 아니다’고 하여 선동적이며 공격적인 표현을 썼다.¹⁴⁾ 정문강은 장군매를 가리켜 현

13) Charlotte Furth. *Ting Wen-chiang: Science and China's New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p.14-5

14) 丁文江, 「玄學與科學-評張君勳的『人生觀』」, 『科學與人生觀』, 上, p.1.

학귀신이 붙었다고 부르고, 그를 가리켜 유럽 유심주의 몽매한 전통과 중국의 진부한 송명리학을 결합시켜 중국이 당장하여야 할 진보를 막고있다고 여겼다.¹⁵⁾

정문강은 장군매가 「인생관」에서 제시한 다섯가지를 조목 조목 내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장군매의 강연과 그의 글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정문강은 과학방법을 첫째 인생관을 과학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과학적인 지식론, 셋째 장군매의 인생관과 과학, 넷째 과학과 현학 전쟁의 역사, 다섯째 중의합작식의 현학과 그 폐단, 여섯째 과학의 오해에 대하여, 일곱째 유럽 문명 파산의 책임, 여덟째 중국의 정신문명 등 여덟가지로 분류하여 대응하였다.¹⁶⁾

정문강의 글이 『노력주보』에 발표되자 장군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문강의 글보다 약 세배나 긴 「人生觀과 科學을 재론하며 또한 丁在君에게 답함」을 『北京晨報』의 「副刊」에 3篇으로 나누어 발표하여 반격에 나섰다.¹⁷⁾ 이로써 쌍방 사이에 논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전은 이 두사람의 반복적인 논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논전에 참여하여 이른바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 있게 되었다.

장군매는 「人生觀과 科學을 재론하며 또한 丁在君에게 답함」을 쓰게 된 것이 정문강의 글(「科學과 玄學-張君勳의 인생관을 평함」)에 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문강이 제기한 문제점을 조목 조목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의 분류를 부인하는 것은 세계상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정문강에서 처음이다.’ 는등 직설적이며 또한 정문강이 인용한 서구 학자의 논리에 대하여 이에 대응되는 주장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¹⁸⁾.

이 두사람은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여서 서로 초대해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인생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였다. 때문에 정문강에 대한 장군매의 반박이 있으면 반드시 정문강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

15) 林毓生著, 穆善培譯, 『中國意識的危機』, 貴州人民出版社, 1988, p.306.

16) 동상, pp.2-30.

17)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p.1.

18) 동상.

기하여 주변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두사람의 논전을 부추기까지 하였다.

우선 장군매의 답에 대하여 정문강은 「玄學과 科學-張君勳에게 답함」을 『노력주보』에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전과 다르게 장군매의 의견에 비판적인 뿐만 아니라 양계초의 의견에 대하여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물론 이 글에 대하여 장군매도 가만히 있지 않고 「科學의 評價」를 발표하여 정문강의 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정문강은 장군매의 현학인생관에 대하여 인생관과 과학은 통일적이며 과학은 인생관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문강은 한사람의 인생관은 바로 그의 지식과 감정의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인생관은 지식을 떠날 수 없으며 지식 안에 과학 방법은 만능으로 이는 바로 인생관은 과학을 떠날 수 없으며 과학이 인생관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문강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며 진실된 사실을 상세히 분류하여 그 다음 그들의 질서관계를 구할 수 있지 무슨 자유의지는 아니라고 하였다.

장군매가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보려는 관점에 대하여 정문강은 그의 感覺論과 存疑論을 제출하였다. 그는 과학만이 세계상에서 알수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어떠한 사물의 이해도 모두 자유의 활동 결과이며 모든 과학적 기본의 것도 感覺感知를 통하여 획득된다고 하였다.

장군매와 정문강의 논전에서 주의할 점은 비록 그들 사이에는 첨예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논점은 공통적이었다. 즉 두사람은 주관성(주체)과 객관성(객체)는 근본적으로 서로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서로가 완전히 절연된 채 각기 독립된 범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귀납법이 과학방법의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지만¹⁹⁾, 그리고 과학적 연구과정에는 가설과 연역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²⁰⁾

19) 林毓生 원저, 穆善培역, 『中國意識的危機』, 貴州人民出版社, 1988, p.311.

20) 동상, p.313.

IV. 논전의 확대와 종료

과학과 현학의 논전은 장군매와 정문강 사이의 논쟁이 약 6개월 지속되는 동안 장군매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문강을 지지하는 입장에 동조하는 글이 발표되기 시작함으로써 점차 열기를 더해갔다. 특히 이 논쟁은 주위 사람에 의하여 부추겨 지기까지하여 장군매와 정문강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쌍방을 비판하는 글들이 발표되어 확대되었다. 이때 정문강의 편에서서 흥을 돋은 인물은 胡適이었다.

호적은 당시 몸이 불편하여 그가 정문강과 함께 펴내던 『노력주보』마저 정간할 형편이었는데 정문강이 이를 반대하고 스스로 몇편의 장문을 지어 이를 중심으로 계속 발간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때 정문강이 쓴 글이 바로 장군매의 「인생론」을 비판하는 「현학과 과학-장군매의 인생관을 평함」이었다. 호적은 이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만약에 『노력주보』가 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간다면-이후 과학을 위해 싸운다면 『노력주보』는 더욱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될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병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이 논전에 참여할 것이라 하였다.²¹⁾ 이로 보아 호적은 확실히 이 논전의 확대를 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병중이었지만 정문강과 장군매의 필전을 보고 '손이 가려워 단문을 지어 두사람의 흥을 돋군다'고 하였다.²²⁾

그러나 당시 호적은 병이 가볍지 않아 약 6개월의 시간을 병으로 보내야 하였기 때문에 이 논전에 겨우 「孫行者와 張君勳」라는 단문의 글을 한편 밖에 쓰지 못하였다. 때문에 호적은 『科學與人生論』에 장문의 서문을 쓰게 되었으며, 스스로 이 논전에서 자신은 도망병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자책하였던 것으로 보아도²³⁾ 호적의 관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1)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 p.1

22) 胡適, 「孫行者與張君勳」의 말미에 장군매에게 보낸 글에서 이 단편을 지어 당신들의 흥을 돋우고자 한다. 문장은 비록 유희에 가깝지만 뜻은 심히 정중하니 보고 나무라지 말아달라고 부기하였다.

23)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p.2

호적은 「손행자와 장군매」에서 손행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하면서 장군매가 과학가들이 최근 발호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하여도 과학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즉 손행자와 장군매를 가리켜 부처님의 손안에 있는 손행자나 과학의 손안에 있는 장군매를 비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논리학적으로 장군매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호적은 비록 논전 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하였지만 논전의 끝머리에 퍼낸 『科學與人生觀』의 서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이 논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글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논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논전을 종합한 것이기도 하다.²⁴⁾ 때문에 서문이라기 보다는 호적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호적은 여기에서 정문강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자연주의 인생관을 제출하였다. 자연주의 인생관에서는 세계는 물질적이고 변화적인 것을 인정하고 운동에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역사의 변화와 그 원인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자연인으로 보았다.

논전의 말기에 陳獨秀와 瞿秋白 등 공산당원이 참여하면서 현학과 과학의 논전은 유물주의와 유심주의의 논쟁으로 바뀌어나갔다. 진독수는 『과학여인생관』의 서문에서 쌍방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장군매·양계초를 공격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의大本營을 깨뜨리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는 활동하고 있다면서 ---정문강이 장군매의 유심적 견해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자신도 50보 물러나서 100보 물러났다고 비웃는 것이나 같다」고 하면서 「객관적 물질 원인이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으며, 역사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인생관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유물적 역사관이 다」라고 하였다.²⁵⁾

진독수의 뜻은 정확한 인생관 즉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적 역사관이 있는데

24) 1923년 말 上海亞東圖書館과 泰西圖書館이 이 논전에 참여하였던 글을 모아 진자는 『科學與人生觀』의 이름으로 상하 두책을 내면서 진독수와 호적이 서문을 썼고, 후자는 『人生觀的論戰』의 이름으로 장군매가 서문을 썼다.

25) 陳獨秀,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上, 亞東圖書館, p.1

무슨 자연주의적 인생관을 이야기 하고 있는나라는 것으로 호적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진독수는 말미에 정문강과 호적에게 '유물적 역사가관이 완전한 진리라고 믿는가 아니면 아직도 유물주의의 장군매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심관이 과학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믿는가'라고 물었다.²⁶⁾

따라서 호적은 진독수의 질문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호적은 '독수가 말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가관이지 우리가 토론하는 인생관은 아니다. 인생관은 한 개인이 우주 만물과 인류에 대한 견해이고, 역사가관은 역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견해이며 개인의 역사에 대한 견해이다. 역사가관은 인생관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독수는 불철저한 한 유물론자이다. 그는 한편으로 心即物의 표현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物質의이란 말로 경제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⁷⁾

이에 다시 진독수의 회답이 있게 되었는데, '사회는 사람이 조직한 것으로 역사는 사회현상의 기록이며 유물적 역사가관이 우리들의 근본 사상이며, 역사가관이란 이름은 역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생관과 사회관에 응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이 논전은 신문화 운동의 좌파와 우파와의 논전으로 변질되어 갔다.

정문강을 지지하는 사람은 호적 이외에 王星洪·朱經農·吳稚暉²⁹⁾·唐鉞 등이 있었다. 반면에 장군매를 지지하는 사람은 林宰平·張東蓀 등이었는데, 이들은 『新青年』, 『學衡』, 『學燈』, 『晨報』, 副刊, 『努力週報』 등을 통하여 감이 글을 쓰면 글이 답하고, 또 글이 글을 쓰면 감이 답하는 형식으로 서로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던 이른바 騎牆派(양다리 파)의 梁啟超·范壽康이 이를 중간에서 원만히 수습해보려고 하였다.³⁰⁾ 양계초는 '인

26) 동상.

27)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科學與人生觀』, p.30, 호적과 진독수의 왕래 서신은 『胡適文存』 제2집 1권 참조.

28) 陳獨秀, 「答適之」, 『科學與人生觀』, pp.33-4.

29) 호적은 오치휘의 「一個新信仰의宇宙觀及人生觀」을 극구 칭찬하였다. 오치휘의 인생관 우주관이 바로 梁任公이 공격하는 순물질적 순기계적 인생관이며 장군매가 공격하는 기계주의였다. 호적의 말을 빌리면 이 글이 영혼을 말할라고 사람이 만물의 영이라는 玄秘를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치휘가 선봉이 되었고 하였다.(『科學與人生觀序』, pp.20-1).

30) 馮天瑜·何曉明·周積明, 『中華文化史』, 上海人民出版社, 1990, p.1086.

생문제는 대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일부 작은 부분 혹은 아주 극히 중요한 부분은 초과학적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³¹⁾, 범수강은 인생관의 일부분은 선천적이고 일부분은 후천적이다. 선천적 형식은 주관 직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과학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인 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탐구되고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²⁾

동년 연말과 다음해에 나온 『中國青年』, 『신청년』에 鄧中夏·瞿秋白·陳獨秀의 문장은 당시 공산당인의 관점을 대표하는 것이다.³³⁾ 앞에서 설명한 진독수를 비롯하여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학파를 지지하고 현학파를 반대하였다. 공산당원인 鄧中夏는 『中國青年』에 「中國 現在の 思想界」를 발표하여 '장군매를 동방문화파라 부르고, 동방문화파는 농업·수공업의 봉건사상을 대표하며, 과학방법파는 신식 공업의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유물사관파는 신식 공업 무산계급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들 사상은 우연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모두 각기 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논전은 동방문화파와 신문화 운동사이에 가장 뚜렷하고 또한 가장 큰 惡戰'이라고 지적하였다.³⁴⁾

瞿秋白은 1923년 12월에 「自由世界와 必然世界」를 『신청년』에 발표하여 '사회현상은 인조된 것이지만 사람의 의지와 행위는 모두 因果律에 지배된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과율 잘 알게되면 그 의지 행위는 더욱 실제적이 되며 그러면 다량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다음에 자기의 합리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학의 인과율은 인생관을 해석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생관을 바꾸기에 족하다. 각 시대의 인생관은 당대 과학의 지식에 의하여 조성되며 신시대의 인생관 창시자는 과학지식을 근거로 삼아 개성의 인생관을 시대의 인생관으로 바꿀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지식은 경계를 기초로 한 기술의 진보와 계급투쟁의 사회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³⁵⁾ 즉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객관적 실체에 부합시킬 때 비로

31) 梁啓超, 「人生觀與科學」, 『學燈』, 1923, 6.

32) 范壽康, 「評所謂科學與玄學之爭」, 『學藝』, 5卷 4號, 1923, 8月1日.

33)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 東方出版社, 1987, p.53.

34) 鄧中夏, 「中國現在之思想界」, 『中國青年』, 제6기, 1923.11.24; 蔡尙思主編, 『中國現代思想史資料簡編』, 제2권, 浙江人民出版社, 1982, pp.175-176.

서 필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존재와 사회의식의 관계를 설명하여 사회존재가 사회의식과 인생관의 계급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V. 결론: 논전의 의의

이 논전에 관련된 글은 1923년말에 上海亞東圖書館과 泰東圖書局에서 모아 전자는 『科學與人生觀』과 후자는 『人生觀的論戰』을 냈다. 그리고 『과학여인생론』의 서문을 진독수와 호적에게 쓰게 하고³⁶⁾, 『인생관적논전』은 이 논전을 유발한 장군매에게 서문을 쓰게 하므로써 논전의 결론을 지었다. 특히 장군매는 논전이 끝난 다음 이를 회상하면서 호적·오치휘·진독수가 가장 중요한 논쟁의 적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³⁷⁾ 호적·진독수의 서문은 장군매의 서문과 함께 당시 사회의 반영으로 보아 현학파는 확실히 아래에 놓여있었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비방과 욕을 들어야 하였다. 그러나 과학파는 오히려 청년학생과 지식인들로부터 광범위하게 공명을 얻어냈다. 이것은 논전 쌍방의 이론과 무기, 또는 변론의 기교가 예리하나 무디냐, 또는 높으나 낮으냐가 아니었다. 과학파는 과학의 영역이 무한히 넓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확실히 패할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연문제와 인생문제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홀리 하였다.³⁸⁾

논전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반년동안이었지만 그 영향은 논전이 끝남에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현학파는 孔孟과 程朱陸王과 베르그송·루소·칸트

35) 瞿秋白, 「自由世界與必然世界」, 『新青年』, 季刊 第2期, 1923.12: 蔡尚思主編, 『中國現代思想史資料簡編』, 제2권, 浙江人民出版社, 1982, pp.396-7.

36) 馮友蘭은 陳獨秀와 胡適의 서문을 가리켜 이 논전에 대한 신문화 운동의 총결이라고 하였다.(『中國現代哲學史』, 中華書局(香港), p.129)

아동도서관의 汪孟鄒는 진독수와 호적의 서문을 받을 때 상황을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남겨 놓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공을 드렸다. 適之(호적)가 쓸때는 적지 않은 책을 찾아 조사한 다음 먼저 대강을 만들어 놓고 다시 정리하여 나갔지만(1만 2천자), 仲翁(진독수)는 달랐다. 종이와 붓만 있으면 되었고 책을 조사하지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써내려(5천여자) 갔다.(汪原放, 『回憶亞東圖書館』, p.87(白吉庵, 『胡適傳』, 人民出版社, 1993, pp.196-7에서 재인용))

37) 張君勱, 「人生觀論戰之回顧」, 『東方雜誌』, 第31卷 第7號, 1934.7.1, 참조.

38) 馮天瑜, 何曉明, 周積明, 『中華文化史』, 上海人民出版社, 1990, p.1087.

의 전통이 동방문화과의 머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였고 현대 신유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과학과는 求實 品格을 체득하여 진취적인 정신으로 나아가 호적의 실증주의·전반서화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또다른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원을 고무시켜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믿게하고 신민주주의 정치 군사 문화투쟁에 종사하게 하였다.³⁹⁾

1923년의 과학과 인생관 논전은 중국 현대사회 정치경제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사상 문화상에서 부르주아계급과 봉건지주계급 사상의 싸움으로 이 논전을 통하여 과학의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봉건적 문화 사상을 더욱 더 비판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게 되었다. 이는 5.4 신문화 운동이 분화된 것을 반영하며 또한 5.4 신문화 운동이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반영하고 있다.⁴⁰⁾

그 결과, 6개월 동안 약 25만자에 달하는 글이 발표되었지만 결국 무엇이 과학적 인생관인지 분명하지 않았다.⁴¹⁾ 오히려 과학과 철학의 관계 등 순수 학술 문제의 논점이 되어 사상사적인 의의를 갖게 되었다.⁴²⁾ 결론적으로 논쟁은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확실히 현학귀신이 사람들에게 욱먹으면서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과학파를 지지하거나 동정하는 것으로 끝났다.⁴³⁾ 그리고 뒤 수년동안 중국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증서문화 논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 논전이 다시 일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사상적 문화적인 논전의 영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과학이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9) 동상, pp.1088-9.

40) 傅長祿, 『中國現代文化史略』, 吉林大學出版社, 1991, p.78.

41) 傅長祿, 앞의 책, p.75.

42)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 東方出版社, 1987, p.57.

43) 이택후, 앞의 책, p.59